

제6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

제 목	2017학년도 6차 등록금 심의위원회	일시	2017.01.31.(화) 14:00~15:30
		장소	K동 206호
안 건	1. 신입생 등록금 가고지 설명 및 동의		
주요내용	<p>[개회 선언]</p> <p>- 위원장 : 총 인원 9명 중 5명이 참석하였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함.</p> <p>[가고지]</p> <p>- 위원장 : 학생위원들이 신입생·재학생 등록금가고지에 대해서 누차 강조했던 부분을 간과하였고, 가고지를 할 수 밖에 없는 현 상황을 늦게나마 직시하여 학생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급하게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미안하게 생각함. 신입생들에게 가고지를 해야만 신입생 학부모님들이 직장에서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 함. 등록기간에 비취볼 때 등록금가고지가 빨리되어야 한다고 말함.</p> <p>- (서울)총학생회장 : ① 급하게 개최되었기에 다른 학생위원들이 참석하지 못한 것에 양해를 구함. ② 타학교의 사례를 보면 가고지가 되기 전에 등록금심의위원회 합의안이 확정된다고 함. 또한, 합의안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본예산 및 모든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합의가 되었다는 뜻인데, 우리 학교의 경우 합의가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가고지를 하게 되어 유감스럽다고 말함. ③ 2월3일 가고지가 되어야 함을 인지하고 있기에 동의하지만, 추후 등심위에서는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개선 될 수 있길 요청 함.</p> <p>[학생위원 요구안]</p> <p>- (서울)총학생회장 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전요청자료 중 받지 못한 자료리스트, 학생요구안, 회의록 등을 검토 및 작성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전달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함. • 장기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은 추가로 개최되는 등심위에서 충분히 설명 될 수 있기 때문에 '노력한다', '협의한다' 라는 답변은 지양해 달라고 부탁 함. • 초중고 건물 감가상각이 거의 끝난 시점에서 신축할 때만 적립금을 인출하겠다는 학교의 주장은 있을 수 없고, 리모델링에도 적립금이 인출 		

되어야 한다고 말함.

- 타학교는 외국인 학생들의 등록금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, 대학원과 외국인도 학부와 같은 기초로 가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 함.
- 학부 입학금 문제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니 답변이 늦어질 수 있으나, 대학원 입학금의 경우 별개의 문제이기에 학교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 함.
- 교육비환원을 140% 목표달성은 교육환경개선이나 집기·비품·기자재 구입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, 전임교수확보율 70% 목표도 교원수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함. 이에 이런 불신을 증식시키기위해 교육비환원율 150%, 전임교수확보율 75%에 대한 요구는 달성가능한 합당한 요구라고 말함.
- 기숙사 컨벤션홀의 경우 디자인벨리가 아직 계획단계인데, 비워두기보다는 임시적으로나마 학생들이 열람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 함. 학교의 장기적인 계획으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니, 그때 열람실을 없애고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면 된다고 말함. 또한, 지하 4층에 열람실을 두는 것은 소음 등 우려사항이 있어 기존 계획대로 지하 2층에 헬스장, PC실, 열람실을 함께 조성하는 것은 어떠한지 의견을 질의 함.
- D동의 경우 2층과 3층에 강의실과 동아리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동아리공간과 학습공간이 공존하는 것은 서로 피해요소라고 말함. D동 3층의 강의실 벽을 제거하고 리모델링함으로써 동아리실로 사용하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질의 함.
- 교직원 직무분석 컨설팅 실시를 중장기계획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것과 컨설팅 결과에 따른 조치를 요청 함. 또한 각 학과나 행정부서에서 증원 요청이 있을 시, 교직원 증원이 될 수 있도록 요청 함.
- 자율전공 개선을 위한 자세한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진행하더라도 큰 틀은 등심위에서 마련하기를 요청 함.
- 적립금 관련 논의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지만, 위와 같은 사안들에 대한 개선이 모두 잘 이루어진다면 교비회계에서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불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함.

- **위원장** : 위 문제들은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타 부서 처장님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이를 토대로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함.

- **(서울)총학생회장** : 작년 합의문이 너무 이행이 되지 않았다고 말하며, 합의문이 보다 자세하게 적시되어야 한다고 말함. 또한, 4월, 9월, 11월에 추가 개최되는 등심위에서 진행 경과를 논의하고 미진행 부분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용인 할 수 있기에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고 말함.

- 위원장 : 학생회장이 정리를 잘해서 자료를 가져오는 것을 보면, 학생 및 학교의 상황을 잘 파악하여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여 고마움을 표시함. 요청안에 대한 답변은 금요일에 하겠다고 말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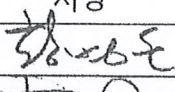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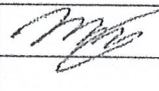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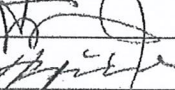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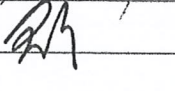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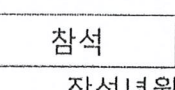
- (서울)총학생회장 : 합의문의 초안이 본예산에 반영된 것의 여부를 체크한다면, 합의문에서 본예산 반영에 대한 부분은 삭제를 할 수 있다고 말함. 또한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학교의 답변을 2월3일 내에 받아볼 수 있기를 요청 함.

- 학생처장 : 학생회장이 말한 것은 이해하지만 공간문제와 기숙사 문제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시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함. 학교입장에서 모든 동아리를 D동으로 옮기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만, 국제언어교육원 강의실 동선 등 여러 관점에서 생각하면 단계적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함.

- (서울)총학생회장 :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함. 하지만 지난 몇 년간 학교가 장기적인 문제에 있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진행된 부분이 없었기에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라고 말함. 예를 들어 24시간 개방문제도 각 단과대학별 개방을 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을 위한 제반시스템과 시설을 학교본부에서 마련하는 등의 한 단계 더 나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함. 또한 D동 문제는 결단을 내려 어떻게든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함.

- 위원장 : 7차 등록금심의위원회 일정(2017.2.3.)을 공지하고 폐회를 선언함.

협의 및 의결사항
1. 신입생 가고지 등록금을 동결하는 것에 협의 함.

참석위원	직위	성명	서명	직위	성명	서명
	위원장	황 병 돈		위원	장 상 희	
위원	이 선 우		위원	이 수 환		
위원	전 성 표		위원	조 민 우		
위원	정 교 범		위원	유 재 호		
위원	심 재 익					
참석현황	참석대상	9명	참석	5명	불참	4명
작성자	재무팀 간사 이승용		작성년월일		2017.2.2.	